

도서관통계에 나타난 정보취약계층의 지표 분석*

Analysis of Indicators for Information-Poor shown in Library Statistics

김 홍 렬 (Hong-Ryul Kim)**

목 차

- | | |
|--------------------|---------------|
| 1. 서 론 | 2.2 선행연구 |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과업의 조사와 분석 |
| 1.2 연구의 방법과 내용 | 3.1 과업조사의 진행 |
| 2. 이론적 배경 | 3.2 과업조사의 분석 |
| 2.1 정보취약계층의 의미와 대상 | 4. 결론 및 제언 |

초 록

본 연구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공공도서관에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투입과 성과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조사와 분석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투입과 성과의 양적인 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도서관 통계지표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도서관 통계지표의 분석을 통하여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각 도서관이 투입하는 요소들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퇴보, 장애인용 특수자료 수의 지속적인 감소,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이용자수의 감소, 전체 도서관 예산에서 차지하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의 매우 적은 비율과 그 예산마저도 매년 감소하는 현상 등의 문제점이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도서관통계에 나타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지표들과 그 추이는 각종 관련 정책들과 공모사업들의 추진이 지식정보격차해소에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노력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되고 있는 듯 보이나, 실질적인 예산의 투입이나 관련 정책의 추진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changes in inputs and outputs for information-poor in public libraries to eliminate the digital divide. The survey and analysis was utilized indicators for the information-poor shown in library statistics. And through the analysis of statistical indicators, it examined the changing patterns of the elements that each library are inputted to eliminating the digital divide. As a result, it revealed problems such as regression of facilities for the aged and disabled, continuous decrease in the number of special materials for disabled person, and reduction of service users and budget for information-poor.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nd to achieve the desired performance for eliminating the digital divide, it's required the budget increase and strong policies for information-poor.

키워드: 정보취약계층,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도서관통계, 장애인 서비스

Information Poor, Information Alienated Groups, Digital Divide, Library Statistics, Library Services to People with Disabilities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전주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hykim505@jj.ac.kr)

논문접수일자: 2016년 7월 25일 최초심사일자: 2016년 7월 25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8월 1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3): 193-214, 2016. [http://dx.doi.org/10.4275/KSLIS.2016.50.3.19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국내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실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도서관법」에 규정된 정보격차해소 관련 조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그러하다. 「도서관법」 제8장에는 ‘지식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독립된 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제43조와 제44조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제43조(도서관의 책무)에는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서관은 장애인,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계 구축,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을 추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또 다른 법률 조항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1조, 제32조이다. 제31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2조에도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노인을 지칭하여 이들

에 대한 서비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다각적인 정책과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정보화교실 사업’, ‘다문화 서비스지원 공모사업’,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 지원 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중에서 ‘다문화 서비스지원 공모사업’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며,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은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독서와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해 독서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해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또한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공공도서관 이용환경 조성과 장애인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정부공모사업이다. 이와 같은 정부가 주관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을 통해서도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의 추진과 함께 공공도서관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편의시설과 자료의 확충,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수행 및 관련 예산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의 추진으로 정보취약계층 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일선 공공도서관에서 이들을 위한 서비스가 얼마나 개선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자원과 서비스가 투입되고 있는지는 알

기 어렵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공공도서관에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투입과 성과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조사와 분석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투입과 성과의 양적인 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도서관 통계지표를 활용하고자 한다. 도서관 통계지표의 분석을 통하여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투입과 성과가 정보격차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내용

본 연구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공공도서관에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투입과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투입과 성과가 정보격차해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인지를 밝히는데 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정보취약계층과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본 연구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문헌적 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투입과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도서관 통계지표에 나타난 3개년(2013: 2014: 2015년)의 정보취약계층 관련 실적을 활용하였다. 이들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www.libsta.go.kr/>)」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이 포털을 통한 1차 조사는 4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최근에 탑재한 2015년도 실적을 보완하기 위하여 6월 1일자로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와 관련된 정보취약계층 및 정보격차해소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정보취약계층과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도서관 통계지표 중에서 정보취약계층과 관련된 지표만을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노인 및 장애인 열람석, 장애인용 특수자료수, 정보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다문화) 봉사대상자수, 정보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다문화) 서비스 이용자수, 정보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다문화) 관련 예산이 해당한다.

셋째, 정보취약계층 관련 지표(열람석수, 특수자료수, 서비스 이용자수, 관련 예산)의 연도별 추이현상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넷째, 관련 예산의 증감과 서비스 이용자수의 증감을 비교하여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다섯째, 정보취약계층과 관련된 지표들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자원의 투입과 성과를 연결되고 있는지와 이들의 투입과 성과가 정보격차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여섯째,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투입과 성과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보완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는 도서관통계에 나타난 지식정보취약계층 관련 지표의 분석을 통하여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투입과 성과를 비교하는 연구에 중점을 두었고, 본 연구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통계분석 결과에 대한 유의미한 실증적 논의나 심층적인 토론 전개는 향후의 과제로 해결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정보취약계층의 의미와 대상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윤정옥, 곽동철, 심경 2012). 정보취약계층은 지식정보취약계층, 정보소외계층, 정보화취약계층 등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도서관계에서는 도서관 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보접근과 이용기회의 차이로 인하여 이들 취약계층과 일반계층 사이에는 계층 간 정보격차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회적 부적응과 무관심, 나이가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어 정부에서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다양한 공모사업을 포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과 '사랑의 그린 PC보급 사업',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화교육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보격차란(digital divide)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하며, 한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이 신체적 경제적, 문화적, 연령적 차이로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이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보취약계층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하나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정보의 습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혹은

환경적 제약으로 인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정보입수채널의 확보가 어려운 계층으로 해석하고 있다(남영준 2007). 전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취약계층 중에서 「장애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농어촌의 주민이 해당한다.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또 다른 개념적 해석의 근거는 국립디지털도서관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하여 제시된 것으로 정보취약계층을 소수계층과 노령계층으로 구분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06). 소수계층은 장애인과 저소득층, 국내 체류 이주민을 포함하는 다문화계층을 포함하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도서관통계조사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을 장애인, 노인, 다문화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기도 한다.

선행연구에서 나온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공공도서관이 자료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취약계층의 대상에는 장애인, 노인, 다문화, 농어촌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2 선행연구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정보격차(digital divide)라는 용어가 사용된 이래로 정보격차, 정보빈곤, 정보소외 등 정보취약계층과 관련된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었다. 정보격차이론은 Tichenor, Donohue, Olien(1970)이 제시한 '지식격차 가설(Knowledge Gap Hypothesis)'로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관련 연구의 수행이 이루

어졌다. 지식격차 가설은 사회경제적 상위 계층은 하위 계층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의 격차가 커진다는 가설을 말한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 이후 정보화의 진전으로 계층 간 정보격차현상이 일어나고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관련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나타나는 정보접근과 이용의 문제 등 디지털 정보격차와 관련된 연구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들은 논외로 하고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로 제한하였다.

국내에서 도서관이 정보격차해소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2007년 「도서관법」에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부터이다. 이 이후부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 대표적인 국내연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영준(2007)은 “공공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서비스 확산을 위해 필요한 개념과 기본적인 서비스 전략들을 제안하였다. 공공도서관은 정보취약계층을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등 각 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적 배려, 제도적 배려, 기기적 배려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조용완(2007)도 장애인, 노인, 이주민, 농어촌거주자 도시 저소득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국내 공공도서관들은 어떤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국내 공공도서관들의 정보격차해소 활동은 양적, 질적 모두 빈약하였으며, 국외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관련

지침 등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서들의 인식전환뿐만 아니라 특수 유형의 자료와 정보접근기기의 효율적 구입방안 등의 필요한 과업으로 지적하였다.

이은철과 심효정(2008)도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역할로 제시된 지식정보격차해소의 개념과 현황을 파악하고, 이의 해소를 위해 공공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이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연구로 정보취약계층의 생활양식과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절한 방식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이정연(2011)은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의 문화복지 정책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네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단기적인 사업성 위주의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둘째, 작은도서관, 장애인정보누리터, 다문화도서관 등의 시설 건립 중심과 비전문적인 순회사서로 유지되는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있었고, 셋째, 정보소외계층 정책의 분산화와 민간 장애인도서관의 공공의 지원정책 미비로 인하여 협력체계 구축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넷째, 대체자료 양적 확산 위주의 장애인서비스 정책이 이루어져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도서관의 정보취약계층 서비스의 정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2011)에서도 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서비스 확대에 대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장애인 중심의 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취약계층을 전체를 대상으로 도서관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사전 연구의 성격으로 수행한 것이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개념을 정립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내·외 사례 및 실태 조사를 통해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정보취약 계층에 대한 실효적 도서관서비스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윤희윤(2012)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5대 정보취약계층(장애인, 다문화, 노인, 농어촌주민, 기초생활수급자)을 대상으로 지식정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형 지향성과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지식정보 취약계층서비스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기본원칙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무한책임'을 지적하고, 이 무한책임은 지식정보센터, 평생학습 및 문화 활동의 주체인 도서관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장덕현(2012)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취약성으로 인해 주류사회로 편입되기 어려운 3대 지식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고찰하였다. 윤정옥 등(2012)은 도서관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취약계층 개념에 대한 정의를 조사 분석하여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의 수립과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농어촌 주민으로 구성된 정보취약계층의 상당수가 중복된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 하부집단의 고유성 및 소집단의 다양성을 확인하였다. 최근에는 도서관 정책 및 연구 지원을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 도서관통계조사(2014년 실적)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이 보고서에도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표가 제시되어 있다. 다만

이 지표는 정보취약계층 중에서 장애인계층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2015년 실적이 빠져있어 최신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최신 데이터를 수록하고, 다양한 정보취약계층을 통합하여 분석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3. 과업의 조사와 분석

3.1 과업조사의 진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식정보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다양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 즉, 자료와 편의시설의 확충,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의 제공, 이용 편의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고 시행하는 시책이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도서관통계에 나타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지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인 정보취약계층 관련 통계지표는 국가도서관통계포털(<http://www.libsta.go.kr/>)에서 추출하였다. 도서관통계지표는 도서관 기본정보, 도서관 서비스지원기관, 소장자료, 시설 및 설비, 인적자원, 예산 및 결산, 이용 및 이용자, 지식정보취약계층 및 어린이서비스, 전자서비스 등 9개 영역 4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정보취약계층과 관련된 지표는 노인 및 장애인 열람석, 장애인용 특수자료수, 지식정보취약계층 봉사대상자수, 지식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이용자수, 지식정보취약계층 관련 예산

5개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지표들을 대상으로 2013년, 2014년, 2015년 실적 통계 지표를 모두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3.2 과업조사의 분석

3.2.1 노인 및 장애인 열람석

정보취약계층의 이용자가 도서관을 방문하여 자유롭게 독서를 하거나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의 구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이유는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열람석의 구비는 이들 이용자들을 도서관으로 직접 유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표 1>은 2013년~2015년 동안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열람석의 추이 현황을 보여주

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관당 노인 및 장애인 열람석수는 광주가 13.09석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음으로 충북이 10.19석, 대전이 9.75석, 인천이 9.63석, 제주가 9.48석으로 9석 이상인 시도가 5개로 나타났다. 반면에 세종시는 1.50석으로 가장 적었으며, 그 다음으로 강원 4.43석, 경남 4.72석으로 이들 시도는 5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관당 좌석수의 연도별 추이는 서울, 대구, 광주, 충북, 충남, 제주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전, 경기, 전북, 경북, 경남 등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1관당 좌석수가 2013년에 8.74석에서 2015년에 7.33석으로 1석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마도

<표 1> 노인 및 장애인 열람석의 추이 현황

시·도	2013			2014			2015		
	열람석수	도서관수	1관당 좌석수	열람석수	도서관수	1관당 좌석수	열람석수	도서관수	1관당 좌석수
서울	1,020	123	8.29	1,101	132	8.34	1,247	146	8.54
부산	195	31	6.29	192	32	6.00	225	36	6.25
대구	154	34	4.53	191	36	5.30	242	39	6.20
인천	336	39	8.62	446	42	10.62	443	46	9.63
광주	188	17	11.05	229	20	11.45	275	21	13.09
대전	237	23	10.30	236	23	10.26	234	24	9.75
울산	102	13	7.85	145	17	8.53	145	17	8.53
세종	0	1	0.00	6	3	2.00	6	4	1.50
경기	1,695	194	8.74	1,826	217	8.41	1,672	228	7.33
강원	325	47	6.91	226	50	4.52	235	53	4.43
충북	302	38	7.95	390	41	9.51	428	42	10.19
충남	280	55	5.09	303	57	5.32	312	58	5.38
전북	333	53	6.28	321	55	5.84	312	56	5.57
전남	330	60	5.50	335	63	5.32	404	64	6.31
경북	393	63	6.24	392	64	6.13	383	64	5.98
경남	338	59	5.73	311	63	4.94	307	65	4.72
제주	154	21	7.33	161	21	7.67	199	21	9.48
합계	6,382	871	7.33	6,811	936	7.28	7,069	984	7.18

단기간에 많은 공공도서관이 신설된 것도 노인 및 장애인 열람석수의 감소를 가져온 이유 중의 하나로 짐작할 수 있다.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1관당 노인 및 장애인 열람석수는 2013년에 7.33석, 2014년에 7.28석, 2015년에 7.18석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대적 사명에 역행하고, 이들을 도서관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과 서비스가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그림 1〉 참조).

3.2.2 장애인용 특수자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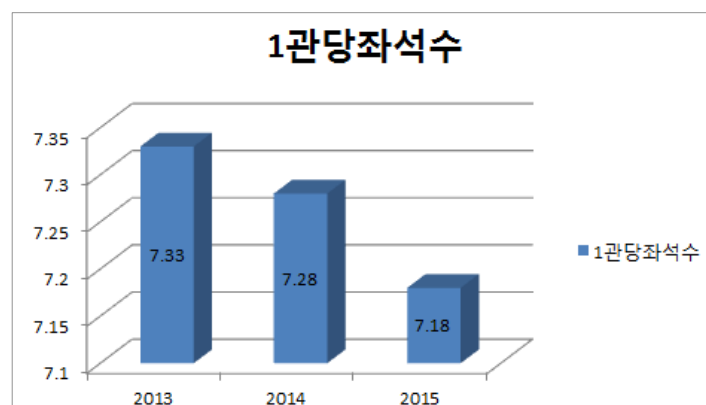
장애인용 특수자료는 시각장애인용 점자도서, 녹음도서, 큰활자도서 등 특수 목적을 위해 제작 활용되는 자료를 말한다. 도서관법 제2조 2항의 ‘도서관자료’의 정의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를 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해야 할 자료로 명시하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장애인용 특수자료수(인쇄 및 비도서 모두 포함)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공공도

서관의 1관당 장애인용 특수자료수는 714권으로 나타났다. 1관당 특수자료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으로 약 2,748권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대전 1,615권, 대구 1,451권, 제주 1,250권, 인천 1,052권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시도들은 1관당 특수자료수가 1,000권을 상회하는 반면, 대부분의 시도는 1,000권 미만으로 확인되어 특수자료의 수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계가 미미한 세종을 제외하고 전북은 222권으로 1관당 특수자료수가 가장 적었으며, 그 다음으로 경북 238권, 강원 261권, 충남 293권 등의 순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공동도서관의 1관당 특수자료수 714권보다 적은 지역은 경기, 경남, 충북, 충남, 강원, 경북, 세종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지역에서는 장애인용 특수자료에 대한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특수자료수의 연도별 증감에 대한 추이현황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자료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 1관당 노인 및 장애인 열람석수의 연도별 추이

〈표 2〉 장애인용 특수자료수(인쇄 및 비도서): 2015년

시·도	도서관수	인쇄자료	비도서자료	합계	1관당 자료수
서울	146	48,728	70,199	118,927	815
부산	36	14,098	12,994	27,092	753
대구	39	14,507	42,096	56,603	1,451
인천	46	22,031	26,357	48,388	1,052
광주	26	2,887	17,224	20,111	774
대전	24	9,624	29,129	38,753	1,615
울산	17	5,708	40,981	46,689	2,748
세종	4	0	0	0	0
경기	228	62,579	82,429	145,008	636
강원	53	6,202	7,654	13,856	261
충북	42	15,513	6,139	21,652	515
충남	58	13,192	3,808	17,000	293
전북	56	3,855	8,562	12,417	222
전남	64	30,640	27,674	58,314	911
경북	64	11,470	3,774	15,244	238
경남	65	23,749	15,830	39,579	609
제주	21	12,708	13,544	26,252	1,250
합계	989	297,491	408,394	705,885	714

〈표 3〉 장애인용 특수자료수의 연도별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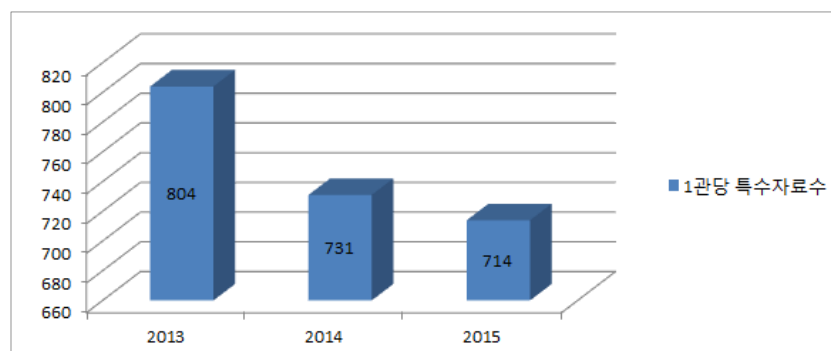
시·도	2013			2014			2015		
	도서관수	특수자료	1관당 자료수	도서관수	특수자료	1관당 자료수	도서관수	특수자료	1관당 자료수
서울	123	76,559	622	132	100,086	758	146	118,927	815
부산	31	26,371	850	32	23,279	727	36	27,092	753
대구	34	50,010	1,613	36	52,869	1,468	39	56,603	1,451
인천	39	44,605	1,143	42	57,882	1,378	46	48,388	1,052
광주	17	22,065	1,297	20	22,656	1,132	21	23,111	1,100
대전	23	36,051	1,567	23	37,017	1,609	24	38,753	1,615
울산	13	39,965	3,074	17	44,330	2,607	17	46,689	2,748
세종	1	0	0	3	0	0	4	0	0
경기	194	117,784	607	217	132,344	609	228	145,008	636
강원	47	12,621	268	50	15,215	304	53	13,856	261
충북	38	15,481	407	41	37,743	920	42	21,652	515
충남	55	14,331	260	57	12,419	217	58	17,000	293
전북	53	11,872	224	55	11,640	211	56	12,417	222
전남	60	164,639	2,743	63	46,465	737	64	58,314	911
경북	63	20,618	327	64	24,806	387	64	15,244	238
경남	59	29,995	508	63	44,562	707	65	39,579	609
제주	21	17,538	835	21	21,779	1,037	21	26,252	1,250
합계	871	700,505	804	936	685,092	731	963	705,885	714

〈표 3〉을 참고하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1관당 장애인용 특수자료수는 2013년에 804권, 2014년에 731권, 2015년에 714권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는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하여 〈그림 2〉에서 이의 현상을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연도별로 1관당 특수자료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대전, 경기, 제주 등 4곳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가운데 서울은 2013년도에 622권에서 2014년 758권, 2015년에 815권으로 2년동안 약 200권이 증가하였다. 반면에 2013년에 비하여 2015년에 100권 이상 감소한 지역은 대구, 광주, 울산, 전남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약 1,500권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최대 감소지역으로 분석되었다.

3.2.3 정보취약계층 봉사대상자수(장애인, 노인, 다문화)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정보취약계층

에 대한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취약계층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농어촌주민이다. 도서관서비스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들 정보취약계층이외에도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도 매우 중요한 정보취약계층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도서관통계에는 다문화 계층을 포함하여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농산어촌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는 통계산출의 어려움과 이들 계층은 성인을 위한 서비스로 통합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통계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2014년 현재¹⁾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봉사대상자수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상기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51,327,916명 중에서 정보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다문화)은 8,640,496명으로 전체 인구의 18.8%에 해당한다. 세부적으



〈그림 2〉 1관당 장애인용 특수자료수의 연도별 증감현황

1) 2015년의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봉사대상자수는 국가도서관통계포털을 통해서도 제공받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2014년 봉사대상자수를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표 4〉 정보취약계층 봉사대상자수(장애인, 노인, 다문화)

시·도	정보취약계층 봉사대상자수				
	장애인	노인	다문화	합계(비율)	전체인구(비율)
서울	398,908	1,216,529	48,744	1,664,181(16.4)	10,103,233
부산	159,430	462,719	10,238	632,387(17.9)	3,519,401
대구	115,983	303,537	7,127	426,647(17.1)	2,493,264
인천	133,855	297,951	14,564	446,370(15.3)	2,902,608
광주	68,288	159,822	5,044	233,154(15.7)	1,475,884
대전	71,198	158,329	5,111	234,638(15.3)	1,531,809
울산	49,014	97,250	4,902	151,166(12.9)	1,166,377
세종	7,943	19,777	596	28,316(18.1)	156,125
경기	508,330	899,199	67,247	1,474,776(11.9)	12,357,830
강원	98,970	255,930	6,269	361,169(23.3)	1,544,442
충북	91,564	156,734	7,410	255,708(16.1)	1,578,933
충남	122,818	332,448	13,266	468,532(22.7)	2,062,273
전북	130,932	280,823	9,376	421,131(22.5)	1,871,560
전남	143,128	383,808	10,711	537,647(28.2)	1,905,780
경북	168,650	438,571	12,027	619,248(22.9)	2,700,794
경남	179,276	372,755	15,299	567,330(18.9)	3,350,257
제주	32,989	82,411	2,696	118,096(19.4)	607,346
합계	2,481,276(4.83)	5,918,593(11.5)	240,627(0.46)	8,640,496(16.8)	51,327,916

로 장애인은 2,481,276명으로 전체의 4.83%이며, 노인은 5,918,593명으로 전체의 1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는 240,627명으로 전체의 0.46%를 차지하여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구대비 정보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다문화)의 봉사대상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체인구의 28.2%를 보이고 있는 전남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전체인구의 23.3%의 강원, 22.9%의 경북, 22.7%의 충남, 22.5%의 전북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농촌의 고령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으로 고령의 노인인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반면에 경기도는 정보취약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인구의 11.9%밖에 지나지

않아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12.9%의 울산, 15.3%의 대전과 인천, 15.7%의 광주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낮고 젊은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지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2.4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이용자수

본 연구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의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 조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조사결과를 제시한 〈표 5〉는 정보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다문화)의 도서관 서비스이용자수와 정보취약계층 봉사대상자수 대비 서비스 이용자의 비율이다. 이 분석에 활용된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표 5〉 정보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다문화) 서비스 이용자

시·도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이용자수(단위: 명, %)							
	장애인		노인		다문화		합계	
서울	187,359	46.9	800,075	65.7	75,988	155.8	1,063,422	63.9
부산	50,964	31.9	136,148	29.4	24,287	237.2	211,399	33.4
대구	28,680	24.7	84,007	27.6	15,988	224.3	128,675	30.1
인천	24,500	21.1	110,170	36.9	24,411	167.6	159,081	35.6
광주	9,802	14.3	63,032	39.4	10,112	200.4	82,946	35.5
대전	38,409	53.9	131,446	83.0	7,809	152.7	177,664	75.7
울산	2,735	5.5	9,602	9.8	2,154	43.9	14,491	9.5
세종	65	0.8	3,831	19.3	158	26.5	4,054	14.3
경기	102,621	20.1	526,402	58.5	80,006	118.9	709,029	48.0
강원	29,303	29.6	102,660	40.1	5,527	88.1	137,490	38.0
충북	32,690	35.7	179,808	114.7	18,644	251.6	231,142	90.3
충남	32,674	26.6	198,559	59.7	27,071	204.0	258,304	55.1
전북	27,116	20.7	155,433	55.3	19,430	207.2	201,979	47.9
전남	31,668	22.1	130,888	34.1	32,170	300.3	194,726	36.2
경북	8,987	5.3	68,485	15.6	17,615	146.4	95,087	15.3
경남	14,680	8.1	126,486	33.9	21,255	138.9	162,421	28.6
제주	2,736	8.3	6,042	7.33	3,743	138.8	12,521	10.6
합계	624,989	25.1	2,833,074	47.8	386,368	160.5	3,844,431	44.4

이용자수는 2014년 통계를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2014년 통계밖에 확인할 수 없는 정보취약계층 봉사대상자수와의 직접적인 이용률 비교 때문이다.

상기의 표에서 보면, 전체 정보취약계층의 44.4%가 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애인은 전체의 25.1%가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노인계층은 전체의 47.8%, 다문화는 전체의 160.5%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이 수치들은 정보취약계층에 속하는 1명이 여러 번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까지 모두 포함되어, 실제로 이 수치보다는 적은 사람들이 이용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북이 정보취약계층 인구 255,708명 대비 231,142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약 90.3% 정보취약계층이 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수치는 대부분의 정보취약계층이 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높다. 그 다음으로 대전이 234,638명 대비 177,664명이 이용하여 이용비율이 75.7%를 보였으며, 서울이 전체 정보취약계층 대비 63.9%, 충남이 5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체 정보취약계층 인구 대비 이용비율이 50%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울산은 151,166명 대비 14,491명만이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비율이 9.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제주 10.6%, 세종 14.3%, 경북 15.3%, 경남 28.6%의 순으로 낮은 이용비율을 보이고 있다.

세부 계층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용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남은 다문화 인구 대비 서비스 이용비율이 300.3%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충북 251.6%, 부산 237.2%, 대구 224.3%, 전북 207.2%, 충남 204.0%, 광주 200.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지역은 인구대비 서비스 이용비율이 200%를 상회하는 지역들이다.

정보취약계층 중에서 다문화의 이용비율이 높은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²⁾의 효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반면 장애인 계층

은 정보취약계층 장애인인구대비 세종 0.8%, 경북 5.3%, 울산 5.5%, 경남 8.1%, 제주 8.3%, 광주 14.3% 등으로 매우 낮은 이용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정보취약계층 중에서 상대적으로 장애인계층의 이용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및 정책적인 보완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의 정책적인 배려 및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서비스 이용자수의 연도별 증감추이를 조사하였다. 이 내용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이용자의 연도별 증감현황

시·도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이용자수의 증감현황		
	2013	2014	2015
서울	1,058,137	1,063,422	844,515
부산	103,338	211,399	226,567
대구	189,141	128,675	158,083
인천	274,075	159,081	150,443
광주	50,492	82,946	76,899
대전	54,163	177,664	74,344
울산	6,379	14,491	25,344
세종	3,848	4,054	4,346
경기	738,571	709,029	702,004
강원	161,769	137,490	202,566
충북	149,387	231,142	232,096
충남	148,834	258,304	345,953
전북	156,795	201,979	220,581
전남	263,179	194,726	167,559
경북	158,653	95,087	97,782
경남	151,582	162,421	166,085
제주	10,684	12,521	14,789
합계	3,679,027	3,844,431	3,709,956

2)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모사업이다. 사업의 목적은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한 외국인 및 내국인의 상호문화준중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사업의 내용은 다문화 문화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제작 및 배포,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담당자 워크숍,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평가지원, 공공도서관 다문화자료실 이용환경 개선 등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3년에 전국적으로 3,679,027명이 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하였고, 2014년에는 3,844,431명으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2015년에 3,709,956명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3〉 참조).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은 2013년에 1,058,137명에서 2014년에 1,063,422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에 844,515명으로 대폭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인천, 경기, 전남, 지역이며, 반면에 부산,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등은 지속적으로 이용자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충남은 이 기간 동안 약 20만명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부산도 10만명 이상이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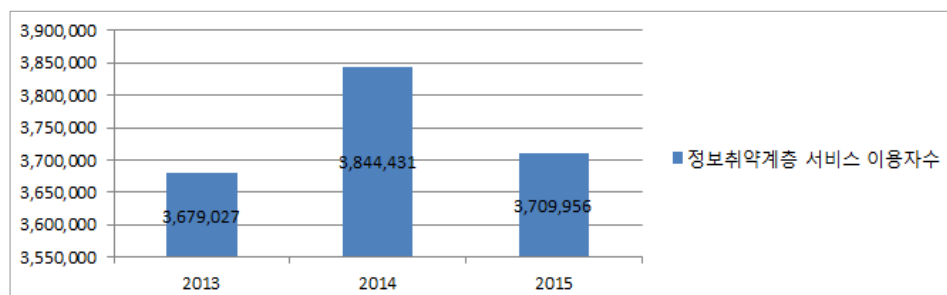
이용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거나, 증가의 둔화폭이 낮은 지역, 그리고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지역에서는 이들 이용자에게 대한 서비스의 내용확충과 정책적인 지원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2.5 정보취약계층의 예산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문화 독서프

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편성이 필수적이다. 이들을 위한 예산의 편성과 전년대비 증가는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 추진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도서관 통계에 나타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예산현황은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체 도서관 예산 855,792,315천원 가운데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7,875,025천원으로 이는 전체 도서관예산의 약 0.9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전체 도서관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지식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인식과 관심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도서관예산 대비 정보취약계층의 예산 편성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충남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전체 도서관예산 39,061,886천원 중에서 599,784천원으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편성비율이 1.54%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서울 1.49%, 전남 1.43%, 제주 1.42%, 대구 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전이 도서관 전체예산 21,523,183천원 중에서 0.24%에 해당하는 51,284



〈그림 3〉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이용자 추이

〈표 7〉 정보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다문화) 예산

(단위: 천원)

시·도	전체예산	정보취약계층 예산(비율)			
		장애인	노인	다문화	합계
서울	115,367,677	434,160	801,612	479,865	1,715,637(1.49)
부산	42,567,491	107,345	81,096	152,757	341,198(0.80)
대구	29,290,460	89,299	114,949	202,574	406,822(1.39)
인천	39,281,029	125,911	122,639	186,150	434,700(1.10)
광주	27,811,765	32,655	133,643	74,254	240,552(0.86)
대전	21,523,183	15,400	8,071	27,813	51,284(0.24)
울산	14,982,553	33,826	29,140	31,181	94,147(0.63)
세종	1,481,454	0	0	0	0(0.00)
경기	250,487,272	379,118	645,081	329,284	1,353,483(0.54)
강원	28,809,978	194,371	99,315	79,906	373,592(1.30)
충북	31,381,049	99,241	44,713	117,559	261,513(0.83)
충남	39,061,886	148,994	273,293	177,497	599,784(1.54)
전북	40,950,223	47,260	91,950	57,752	196,962(0.48)
전남	58,880,496	195,702	376,775	272,011	844,488(1.43)
경북	44,670,998	143,224	108,816	105,173	357,213(0.80)
경남	52,659,649	143,398	85,287	139,895	368,580(0.70)
제주	16,585,152	143,799	24,248	67,023	235,070(1.42)
합계	855,792,315	2,333,703	3,040,628	2,500,694	7,875,025(0.92)

* 전체예산은 인건비, 자료구입비, 운영비를 포함한 예산임.

천원을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전북 0.48%, 경기 0.54%, 울산 0.63%, 경남 0.70% 등이 정보취약계층에 편성된 예산이 하위권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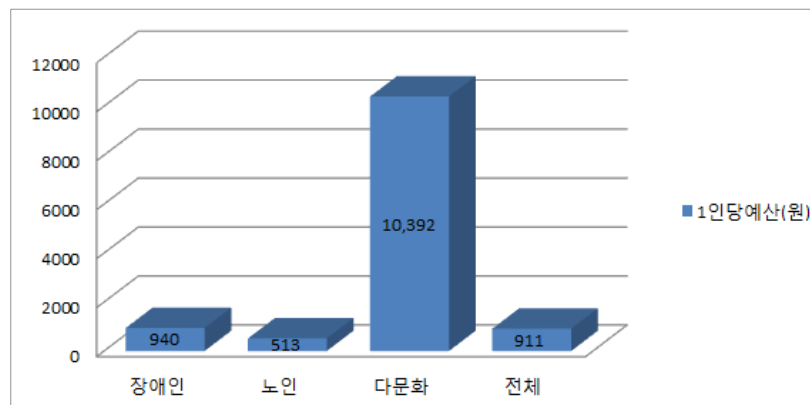
한편, 정보취약계층 1인당 예산을 분석하였는데, 이의 구체적인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총 도서관예산에서 편성된 정보취약계층의 1인당 예산은 911원으로 나타나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보취약계층 1인당 예산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으로 나타났고 이 지역의 1인당 예산은 218원에 불과하였다. 그 다음으로 전북이 467원, 부산이 539원, 경북이 576원, 경기가 622원, 경남이

649원의 순으로 적게 편성되어 있었다. 반면에 제주에는 정보취약계층 1인당 편성예산이 1,990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남이 1,570원, 충남이 1,280원, 강원이 1,034원, 광주 1,031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취약계층 유형별 1인당 편성예산을 분석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다문화계층에 편성된 1인당 예산이 10,392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장애인 940원, 노인계층 513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4〉에 도식화되어 있다. 이 그림을 보면 정보취약계층 유형 중에서 다문화계층에 편성된 예산편성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장애인과 노인계층에 대한 보다 균형 있는 편성과 예산증가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표 8〉 정보취약계층 1인당 예산 분석

시·도	정보취약계층 1인당 예산(단위: 원)			
	장애인	노인	다문화	전체
서울	1,088	658	9,844	1,030
부산	673	175	14,920	539
대구	769	378	28,423	953
인천	940	411	12,781	973
광주	478	836	14,721	1,031
대전	216	50	5,441	218
울산	690	299	6,360	622
세종	0	0	0	0
경기	745	717	4,896	917
강원	1,963	388	12,746	1,034
충북	1,083	285	15,864	1,022
충남	1,213	822	13,379	1,280
전북	360	327	6,159	467
전남	1,367	981	25,395	1,570
경북	850	248	8,744	576
경남	799	228	9,144	649
제주	4,358	294	24,860	1,990
전체	940	513	10,392	911



〈그림 4〉 정보취약계층 유형별 1인당 예산

아울러 정보취약계층 예산의 연도별 증감현황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이

에 대한 결과는 〈표 9〉에 나타나 있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연도별로 감소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013년에 7,943,396천원

〈표 9〉 정보취약계층 예산의 연도별 증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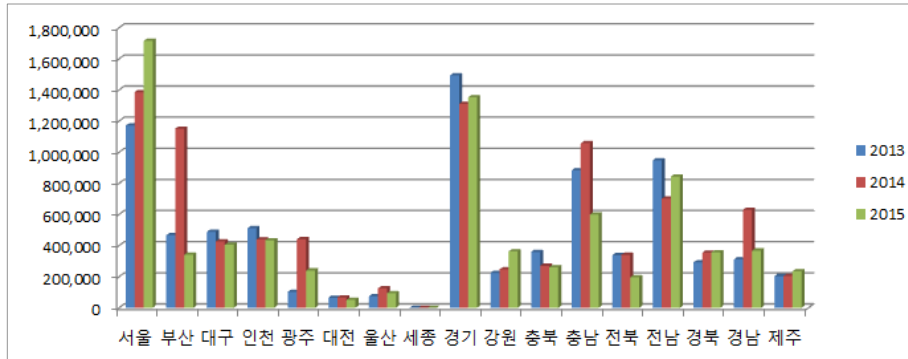
(단위: 천원)

시·도	정보취약계층 예산의 연도별 증감현황		
	2013	2014	2015
서울	1,172,027	1,386,189	1,715,637
부산	467,712	1,151,305	341,198
대구	489,457	426,784	406,822
인천	512,009	439,617	434,700
광주	102,876	441,195	240,552
대전	65,215	67,380	51,284
울산	76,032	125,525	94,147
세종	0	0	0
경기	1,493,942	1,311,549	1,353,583
강원	225,081	247,389	363,592
충북	359,430	270,400	261,513
충남	883,957	1,058,198	599,784
전북	338,789	340,913	196,962
전남	948,668	702,500	844,488
경북	292,158	355,438	357,213
경남	311,841	630,096	368,580
제주	204,202	204,766	235,070
합계	7,943,396	9,159,244	7,865,125

에서 2014년에는 9,159,244천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가 2015년에 다시 7,865,125천원으로 대폭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감소나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남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감소 내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서울, 강원, 전남, 경북, 제주지역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예산편성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었다(〈그림 5〉 참조).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의 편성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책과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종합해볼 때, 정보취약계층에 편성되는 예산은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

내고 있으며, 정보취약계층에 편성된 1인당 예산은 제주 등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실태를 감안하면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이 구호로만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보완이 요구된다. 아울러 정보취약계층 유형별 예산편성에서도 다문화계층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바, 보다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노인계층과 장애인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예산의 증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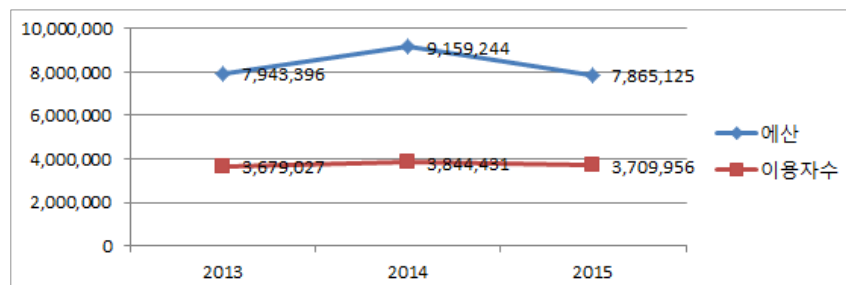
〈그림 5〉 정보취약계층 예산의 연도별 증감현황

3.2.6 예산의 증감과 도서관 이용자수의 비교

도서관 예산의 편성이 도서관 이용자수의 증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2013년에 비하여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던 2014년에 이용자수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4년보다 예산이 대폭 감소한 2015년에 이용자수가 2014년보다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6〉 참조). 이러한 현상에서 보면, 예산의 편성정도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자의 증감으로 나타나지만 상당한 차이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산과 이용자수의 비례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증가를 꺼릴 수

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특히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의 편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서울지역에서 정보취약계층의 이용자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것은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정보취약계층의 유형 가운데서 가장 적은 수를 차지하는 다문화계층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많은 봉사대상자수를 차지하는 노인계층과 장애인계층에는 적은 예산의 투입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장애인과 노인계층에 대한 예산투입의 증가와 함께 균형 잡힌 예산편성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6〉 예산편성과 이용자수의 상관관계

4. 결론 및 제언

도서관 통계에 나타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표를 분석하고자 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1관당 노인 및 장애인 열람석수는 2013년에 7.33석, 2014년에 7.28석, 2015년에 7.18석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5년을 기준으로 세종, 강원, 경남 등의 지역은 5석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시설과 설비 투자로는 정보취약계층을 도서관으로 유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공공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역점시책 중의 하나인 지식정보격차해소는커녕 오히려 관련 정책과 서비스가 퇴보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이들 계층의 전용 열람석 수의 증가는 물론 이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과 설비를 구비하여 도서관으로 찾아올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1관당 장애인용 특수자료수는 714권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지역은 1,000권 미만으로 확인되어 장애인용 특수자료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전북, 경북, 강원, 충남 경기, 경남, 충북, 충남, 경북, 세종은 1관당 자료수인 714권보다 적은 지역으로 장애인용 특수자료에 대한 확충이 시급하게 필요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1관당 장애인용 특수자료수는 2013년에 804권, 2014년에 731권,

2015년에 714권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을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인쇄 및 비도서 특수자료를 확충하는 한편,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대체자료 공유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51,327,916명 중에서 정보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다문화)은 8,640,496명으로 전체 인구의 18.8%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장애인은 2,481,276명으로 전체의 4.83%이며, 노인은 5,918,593명으로 전체의 1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는 240,627명으로 전체의 0.46%를 차지하여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구대비 정보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다문화)의 봉사대상자수는 농촌의 고령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인 지역 전남, 강원, 충남, 전북 등이었으며, 경기, 울산, 대전과 인천, 광주 등 노인인구의 비율이 낮고 젊은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지역에는 정보취약계층 봉사대상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들 지역들은 지역적인 인구분포와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 서비스와 예산편성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전체 정보취약계층의 44.4%가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애인은 전체의 25.1%가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노인계층은 전체의 47.8%, 다문화는 전체의 160.5%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유형별 이용비율을 비교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문화계층

의 이용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전남, 충북, 부산, 대구, 전북, 충남, 광주 등의 지역은 인구대비 서비스 이용비율이 200%를 상회하는 지역이었다. 반면 장애인 계층은 정보취약계층 장애인 인구대비 세종 0.8%, 경북 5.3%, 울산 5.5%, 경남 8.1%, 제주 8.3%, 광주 14.3% 등으로 매우 낮은 이용비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및 정책적인 보완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용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거나, 증가의 둔화폭이 낮은 지역, 그리고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지역에서도 정보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 확충과 보다 많은 정책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다섯째,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우리나라 전체 도서관예산 855,792,315천원 중에서 7,875,025천원으로 약 0.92%에 불과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전체 도서관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 1인당 예산도 911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 예산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보취약계층 유형별 1인당 편성예산을 살펴보면, 다문화계층에 편성된 1인당 예산이 10,392원으로 매우 높고, 장애인과 노인계층은 각각 940원, 513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봉사대상자수가 많은 장애인과 노인계층에 대한 서비스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과 노인계층의 균형 있는 편성과 예산증가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섯째, 도서관 예산의 편성과 도서관 이용

자수의 관계가 완전한 비례가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많은 예산의 편성이 서비스 이용자의 대폭적인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산투입이 직접적인 이용자수 가지적인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예산편성을 꺼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정보취약계층의 유형 가운데서 가장 적은 수를 차지하는 다문화계층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많은 봉사대상자수를 차지하는 노인계층과 장애인계층에는 적은 예산의 투입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장애인과 노인계층에 대한 예산투입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정보취약계층 간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합해볼 때,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감소, 장애인용 특수자료수의 지속적인 감소,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이용자수의 감소, 전체 도서관 예산에서 차지하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의 매우 적은 비율과 그 예산마저도 매년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점적인 시책으로 관심을 갖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 또한 이와 같은 부정적이고 감소하는 지표에 근거할 때, 현재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조하는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란한 구호로만 그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도서관통계에 나타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지표들과 그 추이는 각종 관련 정책들과 공모사업들의 추진이 지식정보

격차해소에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오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즉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노력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듯하나, 실질적인 예산의 투입이나 관련 정책의 추진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법 제8장의 제43조와 제44조 특히 제44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는 조항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 아울러 정보취약계층 유형별 예산편성과 서비스에서 다문화계층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바, 보다 균형 있는 예산편성과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즉 노인계층과 장애인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예산의 증가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국립중앙도서관. 2012.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정보취약계층서비스 확대전략개발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2] 남영준. 2007.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4): 49-68.
- [3]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5년도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4] 윤정옥, 광동철, 심경. 2012. 정보취약계층의 정의와 속성에 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4): 189-206.
- [5] 윤희윤. 2012.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 취약계층서비스 전략.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53-75.
- [6] 이은철, 심효정. 2008.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해소 기여도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4): 309-325.
- [7] 이정연. 2011.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의 문화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2): 27-39.
- [8] 장덕현. 2012.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강화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2): 193-210.
- [9] 조용완. 2007. 국내 공공도서관의 정보격차해소 활동에 대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4): 167-186.
- [10] Tichenor, P. J., Donohue, G. A. and Olien, C. N. 1970. “Mass Media Flow and Differential

Growth in Knowledge.” *Public Opinion Quarterly*, 34(2): 159-170.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2. *A Research on the Strategic Develop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the Information Disadvantaged to Resolve the Information Gap*.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2] Nam, Young-Joon. 2007. “A Study on Revitalization of Library Service for the Alienated Cla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4): 49-68.
- [3]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5. *The Report of Public Library Statistics of 2015 Year*.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4] Yoon, Cheong-Ok, Kwak, Dong-Chul and Shim, Kyung. 2012. “A Study on the Defin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formation Po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4): 189-206.
- [5] Yoon, Hee-Yoon. 2012. “Strategies of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Vulnerable Classe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2): 53-75.
- [6] Lee, Eun-Chul and Sim, Hyo-Jung. 2008. “Basic Study for Analysis of Public Libraries Contribution for Resolving the Gap in Knowledge and Inform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4): 309-325.
- [7] Lee, Jeong-Yeon. 2011. “Study on the Social Welfare Library Policy for the Information Alienated Group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2): 27-39.
- [8] Chang, Durk Hyun. 2012. “A Study on the Public Library Service Agenda for the Core Information-Poor in Busan Metro A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2): 193-210.
- [9] Cho, Yong-Wan. 2007. “Analysis of the Activities of Public Libraries for Closing the Information Divide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4): 167-186.